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9호



제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0th ANNIVERSARY

다양한 기획기사로 복지실천현장 대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다양한 복지 소식이 오고 갔던 지난 10년 동안 신문은 도내의 복지현안을 알리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시설 분야의 소식은 물론 나눔문화, 봉사활동 등 제주지역 복지현장을 속속들이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런 소식들은 협의회 홈페이지(jejubokji.net)의 웹진 기능과 연계 운영해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도의회 소식과 사회복지 현안마다 기획 기사를 마련해 도내 복지정책을 이슈화시켜 알리는 데 노력하고, 시론·칼럼을 통해 제주의 복지현장을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봤다.

시설탐방 등 기사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서비스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법률상담 코너는 도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쉽고

복지현장 소식 전달에 노력한 10년



▲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민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와 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창간했다.

간명하게 알려줬다.

최근 연재한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는 제주 사회복지 원로를 찾아가 제주 사회복지 역사를 듣고 기록하는 연재 기사로 제주

사회복지신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일이라 평가받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그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복

지실천현장을 알리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도내 복지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특별 기획] 원희룡 도지사 복지정책 인터뷰

“복지 1등, 신나는 복지 만들겠다”

도민복지 향상 프로젝트 시행...복지예산 20%대로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간 10주년(창간일 2007년 9월 1일)을 맞아 원희룡 도지사와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원 도정 지난 3년의 복지 분야 성과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남은 1년 제주 복지 발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제주도청 도지사 사무실에서 원희룡 도지사와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에는 본지 김범훈 편집위원의 맡아 도내 사회복지 소식 전달에 힘써온 제

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성과를 소개하고 복지정책 관련 질문에 따라 원 지사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매월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챙겨보며 도내 사회복지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김 편집위원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제주의 사회복지 분야를 어떻게 그려갈 계획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복지 1등, 신나는 복지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취

약계층 지원 확대, 복지편의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6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지원 정책인 ‘탐나는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숙원사업이자 공약인 ‘발달장애인지능향상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전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에 개관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장애인 재활과 자립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개소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관련인터뷰 2면>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오는 9일, 제주대 체육관...나눔대축제 함께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2017 제주 나눔대축제’가 오는 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대학교 체육관과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가 제주의 가치를 키워준다’를 주제로 우누스오케스트라, 크로스오버 그룹 ‘라운’, 브라스 콰텟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기념사 및 축사, 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

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2017 제주 나눔대축제’가 ‘나눔은 동행의 씨앗입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오후 5시까지 열리는 나눔대축제 행사장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더희망제주가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 공연, 365일 36.5℃ 나눔상자 만들기, ‘삼촌 밥 먹영’ 500인분 비빔밥 나눔, 1004인분 자장면 나눔, ‘강릉열차 타고 떠나는 나눔여행’ 등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지면소개

■ 특별 기획 2면
원희룡 도지사 인터뷰

■ 종합 3면
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역량 집중

■ 사회복지소식 4~5면
JDC, 제주꿈나무 문화체험 지원

■ 특집 기획 7면
사회복지인 10인 특집 인터뷰

제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원희룡 도지사 인터뷰

“따뜻한 제주공동체 만드는 데 사회복지인들과 소통에 최선”

원희룡 도정 3년, 제주복지 성과와 과제를 듣다



Q1. 지난 3년간 복지 분야 성과는?

우선 수치적인 성과보다는 한 여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5살인 이 여중생은 장애가 있는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팍팍한 현실에, 가족이 처한 상황에 불안과 반감을 품고 있었고 학교에도 자주 결석해 유급될 상황에 부닥쳤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제주도 맞춤형 복지팀이 학교와 협력해 모닝콜 알림, 등굣길 지원,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 등 지속해서 관심을 쏟았다. 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밑반찬과 생활용품 등 가족의 생계도 지원했다. 이제 이 학생은 학교도 잘 다니고 중국어와 기타학원에 등록해 꿈을 키우고 있다.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이들을 찾아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다.

또 하나는 가족이다. 가족이 힘을 얻어야 사회가 힘을 얻는다. 수놓음 육아 나눔터, 공동육아 돌봄 사업은 보육을 여성, 가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로 확산시켰다. 전국 최초로 법원과 연계해 이혼위기 가족의 회복을 돕고 여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어르신들 복지는 일자리와 여가, 사회참여 등을 고려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14년 4,200개에서 지난해 6,000개로 확충하고 경로당 간식비 인상, 노인 교실 운영비 확대 등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석구석 도움이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2014년 499명에서 올해 73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전국 최초 건물 없는 제주 스마트 복지관을 통해 현장 밀착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제주의료원 요양 병상 확충, 감염병 격리 병상 확충 등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했다.

Q2.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복지, 보육, 노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이나 처우 개선 방안이 있는지?

지난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16명을 채용했다. 내년 초까지 44명을 추가로 총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 14곳을 새로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기념 도지사와의 특별 인터뷰 중에 원희룡 지사(오른쪽)와 본지 김범훈 편집위원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 김동주 기자>

Q3. 일자리가 화두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제주어로 동화를 들려주고 인형극 공연을 하는 어르신 동화구연가 180여 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제주 감물로 염색한 스카프와 옷, 해녀 인형을 제작해 소득을 창출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자연과 문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리고 일자리로 연결하는 제주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취업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바리스타, 경비원 등 전문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니어클럽의 말꼬미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좋은 예이다. 지난 5월 정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됐는데 11월쯤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제주는 전국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지만, 경력단절 여성 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수놓음 육아 나눔터를 열어 육아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을 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취업 기회,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603명, 지난해 1,972명이 취업을

했다.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유기농 로컬 푸드, 공정여행, 수제도시락, 독서지도 영어교육 등 협동조합형 4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올해 도청 내 공원에 커피숍이 문을 열었다. 장애가 있지만 커피를 내리는 솜씨는 프로인 바리스타들이 근무한다. 싸고 맛도 있어 공무원은 물론 도민에게도 인기가 높다. 앞으로 2곳이 더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고용 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힘쓰겠다.

Q4. 10주년을 맞은 제주사회복지신문과 독자들, 사회복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산적인 복지’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정책 일선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주로 사각지대를 다루던 복지는 이제 경제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과 제도, 복지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복지 인력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복지 1등, 성장 1등 제주를 만들겠다. 이 모든 과정을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교류하며 협력하겠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손길로 구석구석 살피주시기 바란다. 그늘 없이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함께 하겠다.

<정리: 김현미 팀장>

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역량 집중

보건복지여성국, 12개 과제 중 7개 연계과제 추진계획 발표

제주도는 지난달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원희룡 지사가 주재하고 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회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 7월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정과제와 연계한 각 실국의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공유해 국가적 추진 동력을 얻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 4차산업혁명, 복지, 분권과 균형발전)와 제주의 역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정의 우선 정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4대 복합혁신과제 및

제주 역점 정책 우선 추진

것을 강조했다.

부처별 보고에서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무순)은 사회복지여성분야 12개 국정과제 중 △기초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 등 7개 연계과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핵심현안과제 추진 상황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 20% 달성'에 37건 574억원 예산을 신규·확대 발굴하고, '노령·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확대'에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고령친화기업 1호 유치, 제주형수눔음육아나눔터 조성('17년 18개소),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을 보고했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 9월까지 부처별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여 기간이 제주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시한"이라며 "각 부서별로 핵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자문위원 소개

편집·자문위원



김길웅
시인·수필가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장



한영조
산림치유지도사

편집위원



고보선
제주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문익순
(전) 4·3사업소장



손영준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가나다순>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당신을 위한 심포' 제막식 개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4일, 사회복지협의회 2층 휴게테라스 '당신을 위한 심포'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 공간은 협의회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곳으로 1층과 2층에 각각 마련돼 차 한잔과 함께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랭프유스 이웃사랑물품 지원

랭프유스제주-청소년의국어교육봉사단(고정숙 단장)은 지난달 26일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이웃사랑 물품(라면 멀티팩 73봉)을 지원했다.

지원은 랭프유스가 3일간의 모금활동을 통해 얻은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나눔장터 바자회 수익금 기부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지난달 4일,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들이 '희망을 나누는 콩알반쪽 나눔장터'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으로 제주시사랑나눔푸드마켓에 3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물품(설탕 154Kg)을 기탁했다.



아라온해수사우나 이용권 전달

아라온해수사우나(대표 장승남)는 지난달 4일, 제주광역푸드뱅크에 해수사우나 이용권 1,000매(500만원)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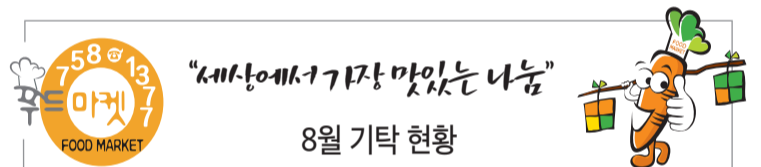
이날 기탁받은 사우나 이용권은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도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 관광협회, 후원금 기탁

도 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단장 강인철)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사랑나눔푸드마켓을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식자재를 구입하고 전달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8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232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 4,034개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100kg ▲김치원=김치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573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83개 ▲대한천리교 대성교회 쌀200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566개 ▲모양=제과류91봉 ▲미인빵=빵99봉 ▲아라어린이집=백설탕154kg ▲아라파파=떡392개 ▲이든이네=건어물15kg ▲자연드림 이도점=빵16봉 ▲제주보리춘=보리빵53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쥬스 200개 ▲제주도청 존샘봉사회=고추장110kg ▲캣어클락=식빵9봉 ▲파리바게트 제주대유대림점=빵70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30,000	0
난치병환아후원	55,000	0
자원봉사후원	370,000	370,000
복지사업후원	940,000	249,300
푸드마켓후원	3,140,000	1,371,90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고치환 편집인: 고봉식 편집·자문위원: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JDC, 제주꿈나무 서울 초청 문화체험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달 17일부터 양일간 '도내 청소년 서울 초청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6월 1·2차 초청행사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3차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11명이 참가했다.

아동들은 잠실 롯데월드와 롯데월드 전망대, 상암



▲ JDC서울사무소가 주관한 '도내 청소년 서울 초청 문화체험' 행사에서 지난 달 17일 아이들이 국회를 방문,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서울의 명소를 체험하고 국회를 방문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광희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제주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체험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롯데월드 놀이기구가 재밌었고,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국회에서 일하는 상상을 하게 됐다"라며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여름방학프로그램 지원

한빛지역아동센터(센터장 오임택)는 렛츠런파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의 후원으로 지난 달 19일 여름 문화체험프로그램 '렛츠런파크 제주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를 진행했다<사진>.

30여명 아동들이 제주위터파크 물놀이와 외식문화 체험 등을 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든 이번 프로그램은 한 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도

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름방학프로그램 공모로 추진된 사업이다.

오임택 센터장은 "여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행복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정형석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에게 깊은 감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 이동복지관 '츠자와수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두호)가 주최하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이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츠자와수다'가 지난 7월 28일 우도체육관과 우도면 일대에서 운영됐다<사진>.

도내 총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대를 통해 추진되는 '츠자와수다'는 매해 2차례씩 운영되며, 기업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각 기관과 단체가 지닌 역량과 전문 복지서비스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도에서 진행된 '츠자와수다' 이동복지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안안마사협회 제주지회,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제주지방병무청, 상

록헬스케어나눔사랑봉사단, 손뚝모아봉사회, 탐라예술단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부스 운영과 문화공연을 비롯해 전기안전 점검, 방역, 세탁, 이동목욕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했다.

제11회 KT배 전도장애청소년 IT경진대회 참여자 모집

오는 8일까지, 제주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11회 KT배 전도장애청소년 IT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KT제주고객본부(본부장 오상곤)에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도내 장애청소년들에게 IT기능 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성

취감 고취와 정보화 지식습득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부문별 대상에게는 30만원 상당 상품이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장애



청소년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jejuhab.or.kr)에서 오는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나눔과 꿈' 위탁가정 집단상담 진행

8회 과정·18세대 45명 참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8회기에 걸쳐 위탁가정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위탁가정 집단상담은 18세대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치료 4회기와 모래놀이치료 4회기로 진행됐다.



한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는 9월 가족여행 등 대리양육가정(조손가정)의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 카페 차롱' 공모 선정

제주시니어클럽 도시락 사업...국비2억 확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한국중부발전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에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이 신청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서 제주시니어클럽은 전통음식 도시락 사업 '더 카페 차롱'을 신청해 최종 선택을 받았다.

고수희 편집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취득



고수희 편집위원(평안요양원 원장)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 지난 달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3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돌하르방의 선물 'DSLR'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소장 김도영)는 카카오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영상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중기(가명·17)군이 DSLR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김군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실력을 갈고 닦아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종이접기 교실' 진행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지난 7월 27일 센터에서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교실'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TV를 통해서 보던 김영만 선생님이 눈 앞에서 직접 종이접기를 알려주자 여느 시간보다 더 즐거워했다. 김영만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싸인을 해 주고, 사진을 함께 찍으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여름 추억 만들기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7월 26일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위터파크에서 SK천사단과 함께하는 '2017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여름방학 동안 원 가정에 귀가하지 못한 이용자 17명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을 만들어 주는 이번 행사에는 SK천사단 봉사자와 지원교사 등 30여 명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Together, High-five'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지난 7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가족캠프 "Together, High-five"를 개최했다. 제주도의 지원과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캠프에는 10가정의 다문화가족들이 참가해 난타공연관람, 경찰체험학교, 특공대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가족사랑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키퍼스' 종강



온새미로(놀푸른, 봉아름, 용담, 우리동네, 이호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는 지난 7월 31일,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일키퍼스' 15회기 과정을 마쳤다. 스마일키퍼스 수업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자기주도형 참여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부모애 형제애 어울림 가족캠프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마이테르호텔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모애(愛) 형제애(愛) 어울림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시설거주중장애인의 가족의 관계강화를 위한 이 캠프에는 장애인 가족 등 80여 명이 참가해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관광지 관람 등을 통해 가족 친화의 시간을 보냈다.

가족 행복 나들이



약천사 자광원(원장 정수 스님)은 지난달 3일 서귀포시 산짓물 물놀이장에서 월평온새미로 가족봉사단과 함께 '흔디 모다들영 happy swimming' 여름 물놀이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자광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참가했다. 이용자, 이용자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물놀이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놀멍 쉬멍 걸으멍



원지역아동센터(시설장 신상오)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놀멍 쉬멍 걸으멍, 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키자니아 방문 등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이뤄진 캠프에는 학부모, 아동 30여 명이 참가했다. 신상오 시설장은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영캠프 다 같이 얼수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지난 7월 28일 제주금호리조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수영캠프 다 같이 얼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긍정적 에너지 발산을 목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며 기초체력 단련,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4회 상담의날' 부스운영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달 9일 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4회 상담의날' 부스를 운영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실시한 부스운영에서는 보조기기 수리 7건, 무료대여 2건, 보급사업 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대여중인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다문화가정 나들이 행사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7월 29일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30여 명을 대상으로 '더마파크, 금능석물원' 등 관광지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특화프로그램이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7일 홈플러스 서귀포점 매장내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아동학대 발견시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또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 작성 참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0주년 특집칼럼

찾고 풀고 애태움 그리고 기다림

제주사회복지신문이 2007년 9월에 창간돼 올해 열 둘을 맞는다. 10명 편집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서로 간 인사를 나누던 일이 떠오른다. 이동한 직전 회장이 평소 품고 있던 큰 뜻 하나를 풀어내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신문은 그렇게 뜻을 올려 세파 속으로 향진에 나섰다. 이 회장의 눈빛과 싱그러움 그 행간으로 신문의 꿈과 지향이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여건이 돼 있지 않았다. 비탈진 자드락에 첫 삽이 잘 들 리 만무했다. 하지만 창간을 선언한 신문이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또 그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애태우면서 신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왜 없겠는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놓이는 법. 신문이 등 떠밀고, 신문이 다독거리고, 신문이 손 내밀어 이끌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장애인, 늙고 힘없는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게 버겁기만한 도시서민들...

어떻게든 신문의 존립 근거를 그렇게 맞추자. 그래서 그들의 표정과 속정을 담아내자는 쪽으로 뜻들이 모아졌던 것 같다. 그것은 누구의 주장 이전에 눈앞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물 흐르듯 그렇게 흘렀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 실행은 편집위원과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면서 급기야 신문이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돌이키건대, 10년 전만 해도 제주사회는 복지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된다든지, 복돋아 주고 키워야 할 시설들이 방치된 채 있는 현실을 함께 아파한 자리에 신문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늘진 곳 비추는 따사로운 후원자 세상 조명

독자 숨결 느끼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노력

놀라웠다. 세상이 메말랐다 하지만 온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아직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뜻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을 때 함께한 그들은 끝내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었다.

신문의 고유 기능으로서 '알리는 일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것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이름조차 낯선 이들에게 그 실체를 알렸을 뿐 아니라 기탁처(후원처)를 찾아 나서서 의외의 큰 성과에 가슴 뛰던 일, 그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 바로 복지신문이었다.

여기서 '아, 그렇구나.'하게 하는 게, 복지신문에 기사화되는 90% 이

상이 일간신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신문으로서 기본인 보도 기능에 충실해 왔다고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원하고 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기적의 편지'가 큰 울림을 주었다. 불우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원을 손편지로 써 보내 오면 이를 심사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사업에 JDC가 예산을 곱절로 늘려 1년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기사가 나간 것이다. 아이들이 그

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장난감에서 책, 자전거, 운동복, 컴퓨터, 안마기...

할머니의 고단한 몸을 주물러 줄 안마기에 녹아든 손자의 효심은 얼마나 값지고 눈물겨운 것인가. 가슴 뭉클했다. 개발센터 이광희 이사장의 인간적인 배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복지신문이 제대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후련함이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펼쳤던 '몽생이 기재단'의 활동도 신문에 고운 문양 하나를 그려 놓았다. 어린 학생들이 시설을 찾아 발품을 팔며 직접 보고 느끼고 겪었던 체험은 그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소중한 인식의 싹을

틔울 데다.

복지신문은 독자들의 숨결을 느끼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에 집중해 왔다. 눈 번득이며 바라보아야 하고 귀 세워 들어야 하는 일들이라 매번 긴장했음을 실토했다.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연대감을 높이고 확장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면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해법도 어렵잖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에 관한 한 그렇게 풀어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복지신문 편집위원 10년에서 은연중 몸매 밴 방책이라 해도 되겠다.

고치환 회장의 연임이 신문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는 기대를 한다. 고매한 인품에다 종교적인 사랑의 마음이 신문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하리라는 의미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십 년, 119호를 넘에 이는 감회가 자못 크다. 사회복지를 대변하기 위해 나날이 성숙하는 꿈은 신문으로 존재감을 내보였으면 좋겠다.



김길웅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수필가

시론

'자치복지권'에 따른 복지계의 과제

2018년 내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는 해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실험단계를 거친 기간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고도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지방분권'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공약으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본조건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권한을 헌법에 명

문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되지 않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는 제주부터 먼저 고도의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실제 헌법에 고도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제주도가 명시돼 추진하게 된다면 제주도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된다. 우선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아 자유롭게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이 확보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벌여왔던 예산확보 전쟁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또는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이 이뤄지면 제주도의회 권한이 막강해진다. 조례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뛰어넘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권한은 오히려 약화되면서 정치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판도변화가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제도 '큰 흐름' 준비해야

이는 복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치복지권이 이뤄지면 제주도는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업무를 이양 받아 직접 운영하게 한다. 그런데 만약 이의 운영에 따른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짐만 가져오는 자치복지'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국가 복지업무에 대한 명확

한 책임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함께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이 시급하다.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변화, 자치복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복지계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영조

산림치유지도사

복지현장 지킨
사회복지신문
동갑내기 10인
특집 인터뷰

“어르신 돌보며 회복되는 모습에 행복”

제주사회복지인 10인의 사회복지 10년 이야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제주사회복지현장의 소식을 전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2007년도 입사하고 제주사회복지현장 10년을 묵묵히 지킨 사회복지인들이 제주사회복지신문의 동기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사회복지현장 10년을 보내는 동기생들에게 어떤 기억이 있을까? 제주사회복지신문 동기생 10인을 선정,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누구나 ‘인권’은 소중합니다”



박주형(46, 오른쪽), 문태훈(35, 가운데)씨는 사회복지재활교사로 김경희(47, 왼쪽)씨는 간호사로 제주장애인요양원에서 10년차를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입사 당시와 비교해 지금의 사회복지현장에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법과 제도에 따라 서류 등을 바꿔 정리하면 또 법과 제도가 변경돼 다시 고쳐야 했어요(웃음). ‘생활시설→거주시설’ 등 용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인권 인식 향상인 것 같아요. 입사 당시엔 인권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때라고 인권이 없던 것은 아닌 데, 열악한 환경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급자 중심의 인권이 침해되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됐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현재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제는 속도가 아닌 이용자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결정되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이용인들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종사자의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병원은 포기해도 우리 포기 못해요”



권준(57, 왼쪽), 송영이(56)씨는 성지요양원 요양보호사로 10년을 보내고 있다. 둘은 부부이기도 하다. 10년의 요양보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나는 일에 대해 물었다.

“4년 전,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길 수 없을거라는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하며 잠시동안 돌봐줄 손이 필요해 입소하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일단, 뭐라도 잡수게 해 영양을 채우는 게 시급했어요. 김을 갈아 미음에 넣어도 보고, 홍시를 갈아 넣어 조금이라도 드시게 했어요. 정성이 통했는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어르신이 일주일을 넘기고, 한달을 넘겼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며 포기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케어한 덕분인 것 같아요. 가족을 비롯한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죠. 지금은 요양원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이 됐어요. 그때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기억이에요”라고 미소지었다.

“천사같은 미소가 그리워요”



강인혜(53, 왼쪽), 문양숙(47)씨는 제주케어하우스에서 10년차를 맞이한 사회복지사이다. 두 분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나 사건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힘든 시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함께 지내던 이용자 분들을 떠나 보낼때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 어린 친구가 떠났을 때 아픔과 안타까움이 가장 심했어요”라고 답했다.
이 곳은 성인중증장애인시설이 아닌지? 하며 의문을 품자 “2007년 개관 초 특별한 사연의 어린친구가 입소했어요. 그때 당시 12살 뇌병변을 가진 아이였는데, 사연인 즉 9살 적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 친구는 구하고 본인은 미쳐 나오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아이였죠. 가끔씩 미소를 지을 때면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3년 전, 그 아이가 세상을 등졌는데 그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라고 애써 담담히 얘기했다.

“나리 태풍 평생 잊지 못해요”



고선희(51)씨는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식·위생을 책임지는 위생원으로 10년을 보내고 있다.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자, 단숨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라고 하면 입사 3개월만에 겪은 ‘나리’ 태풍 피해를 잊을 수 없죠”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서 살며 모든게 물에 잠기고 휴탕물이 되어버린 수해 피해현장을 그때 처음 보고 겪었어요. 우선 물이 빠진 현장에서 보물찾기 하듯 쓸 수 있는 물건부터 건져내야 했어요. 무엇보다 손을 대야 할지, 끝내지 않을 것 같던 피해현장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됐어요. 그 때 자원봉사자분들과 여러 곳에서 후원해 준 분들이 큰 힘이 됐어요”라고 답했다.

“신변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고선희(37)씨는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사이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케어와 심리지원을 10년째 하고 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소개해 달라 요청했다.

“집을 나온 아이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에게 막말을 듣는 일은 다반사다”라며 “집 밖에 나온 아이를 보호하면서 아이가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불안한 아이를 설득시켜 경찰에 신고를 도운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신변을 위협한 적이 있다. 원장님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됐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

“선생님 닮은 사회복지사 될 거예요”



송민영(46)씨는 제주도 교육청 소속의 교육복지사다. 지난 2007년 제주중등학교를 시작으로 제주중학교를 거쳐 현재는 하귀초등학교에서 애월읍 내 10개 초교를 담당하고 있다. 힘들었던 기억 또는 좋았던 기억에 대해 물었다.

“매일 같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집을 방문해 달래가며 등교 시키고, 가출한 학생을 하루가 멀다고 찾으러 다녔어요. 이젠 애들이 집 나가면 어디 있는지 다 알죠(웃음). 그랬던 아이들이 몇 해 전부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군대도 다녀오고 미용기술을 배워 취직했다고요. 어여쁜 숙녀가 되어 대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며 찾아와요. 그럴 때 바르게 자란 학생들을 보면 참 행복하죠”라고 말했다.

세상의 중심 비영리 사단법인
더희망제주 함께하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7 제18회 나눔 대축제



일시 | 2017. 9. 9(토) 10:00~17:00
장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일원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가 제주의 가치를 키웁니다

- 일시 | 2017. 9. 9(토) 10:00~11:00
- 장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 축하공연(09:40~10:00) | 우누스오케스트라, 크로스오버그룹 라온, 브라스 쿼텟
-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기념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낭독, 다함께 하는 다짐 등
※기념식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2017 제주 나눔 대축제 '나눔'은 '동행'의 씨앗입니다

- 일시 | 2017. 9. 9(토) 11:00~17:00
- 장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일원

무대공연

(사회 : 개그맨 이광섭, 방송인 오다경, 진두선 대표)
바이올렛, 제주풍경, 알럼우쿨, 와들락밴드, 양호진, 키즈에스텔 소리나눔 어린이난타, 올레플라멩고, 줌바, 오버플로우, 한얼예술단, 더희망밴드 엘피스

알찬부스

- 목공DIY, 고무신아트, 스칸디아모스 소품·전구플라리움 디퓨저 만들기, 드론·RC자동차체험 등
- 나눔도서관, 나눔장터, 나눔카페와 찻집, 나눔 뱃지 만들기, 1년 후 받아보는 나눔엽서

부대행사

- 365일 36.5°C 나눔상자 만들기
- "삼촌 밥 먹영 감사"(500인분 비빔밥 나누기)
- 1004인분 짜장나눔
- '깡통열차' 타고 떠나는 '나눔여행'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7. 9. 9.(토) 11:00~16:00
- 장소 : 제주대학교 체육관, 잔디광장
- 시상 : 총 36명(도지사상, 교육감상, 도의회의장상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ejubokji.net) 참조

학생자원봉사인증
나눔대축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등학교(4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